

머리말   동아투위와 박정희의 싸움은 현재진행형	5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기획편집팀	
동아일보와 박정희와 나	22
장윤환(전 동아일보사 문화부 기자, 전 한겨례신문 논설주간)	
해직 두 해 만에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운 아버지	56
이주헌(고 이의직 동아투위 위원 장남, 미술평론가)	
감옥에서 맞은 딸의 결혼식	72
윤활식(전 한겨례신문사 전무, 전 동아투위 위원장)	
곁에 계시지 않지만 자랑스러운 당신	91
조연수(고 홍종민 동아투위 총무 부인)	
그렇게 서둘러 떠날 당신이 아니었는데	109
송정숙(고 심재택 동아투위 위원 부인)	
문간방 나그네로 떠돈 38년 세월	125
허육(전 동아방송 피디, 전 롯데그룹 이사)	
종각번역실과 나	139
황의방(전 동아일보사 여성동아부 기자, 전 리더스다이제스트 편집인)	
‘좌빨’로 몰리며 살아온 세월	145
박지동(전 동아일보사 체육부 기자, 전 광주대 언론대학원장)	
미국 이민 32년 내내 그리운 얼굴들	158
서권석(전 동아일보사 문화부 기자)	
동아투위 간판을 내릴 날은 올 것인가	168
문영희(전 동아일보사 문화부 기자, 전 동아투위 위원장)	
먹고 살고 싸우며	189
이종대(전 동아일보사 정치부 기자, 전 기아자동차 사장)	
자유언론운동, 해직, 그 후의 삶	201
박종만(전 동아투위 총무, 전 YTN 이사)	

동아 해직이 만들어 준 '미스터 스쿠프'	217
윤석봉(전 동아일보사 사진부 기자, 전 로이터통신 사진기자)	
자유언론에 사로잡힌 나의 삶	224
이부영(동아투위 위원, 전 열린우리당 의장)	
아! 그 엄혹한 시절을 어찌 살아왔던가	249
이기중(전 동아일보사 체육부 기자, 전 한겨례신문사 판매국장)	
우리는 유신독재에 이렇게 저항했다	265
성유보(전 동아일보사 편집부 기자,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역천의 세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가	285
이영록(전 동아일보사 사회부 기자, 전 대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동아일보 해직과 굴절된 삶	306
김동현(전 동아일보사 사회부 기자, 전 한국광고협회 부회장)	
홈그라운드를 빼앗긴 자의 슬픔	320
이태호(전 동아방송 사회문화부 기자, 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간사)	
해직 후, 장인의 한약방에서 건재를 썰던 시절	335
이명순(전 동아방송 피디, 전 동아투위 위원장)	
언제까지 박정희와 함께 살아야 하나	342
김종철(동아투위 위원장,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동아투위 명예회원으로 함께한 38년	360
이해동(목사)	
어디서 동아투위 선배들을 다시 만나랴	382
박래부(새언론포럼 회장)	
우리에게 깃발이며 등대인 동아투위	397
이근행(MBC PD & 뉴스타파 PD)	
동아투위 위원들의 생애를 연구하다	406
김세은(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